보도자료

2024년 5월 23일 부산 2024-5-6호

이 자료는 5.23(목) 10:30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고빈도 자료를 활용한 최근 부산지역 가계소비 흐름 평가

□ 5.23일(목)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조사연구보고서 「고빈도 자료를 활용한 최근 부산지역 가계소비 흐름 평가」를 발표*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동 영향이 집중된 **가계부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증가

⇒ 신용카드 지출액 등 **고빈도 자료**를 활용해 최근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가계소비 **회복 여건**을 평가하고자 함

◈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최근 흐름**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나타냄

- ㅇ **2023년** 전체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감
- ㅇ 특히 **서비스 소비**의 **반등**(pent-up 효과)이 가계소비 흐름을 주도
- ㅇ 반면, **재화 소비**는 **부진**이 이어져 **서비스-재화**간 **비동조화** 지속
- ㅇ **국외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소비의 **지역 생산활동**에 대한 **기여**는 **축소**
- ㅇ **2023년 하반기**부터는 가계소비의 **회복 모멘텀 약화**

◈ **앞으로도 부산지역 가계소비**는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ㅇ 임금·고용 개선으로 **소득여건**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소비심리**도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
- ㅇ 하지만 ①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변화로 **안정적 구매력 개선**은 **미흡**하고, ②그간 가계소비 회복을 뒷받침하던 **축적된 저축**이 **소진**되기 시작한 데다, ③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물가 오름세**와 **가계부채 수준**, **부동산가격** 하락은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김하영, 조사역 전은경
Tel : 051-240-3852, 3856 E-mail : bokbusan@bok.or.kr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부산본부' 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붙임>

고빈도 자료를 활용한 최근 부산지역 가계소비 흐름 평가

2024. 5.

한국은행 부산본부

<작성자>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김하영 과장, 전은경 조사역, 곽법준 팀장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 요 약 >

Ⅰ. 검토 배경 1

Ⅱ. 부산지역 가계소비 개황 2

1. 가계소비 규모 및 구조
2. 가계소비 추이

Ⅲ.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최근 흐름 5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및 주요 특징

Ⅳ. 향후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회복여건 평가 10

1. 가계소득
2. 축적된 저축
3. 소비심리
4. 물가 및 금리
5. 주택가격

Ⅴ. 종합평가 및 시사점 18

1.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2. 시사점

<참고문헌>

고빈도 자료를 활용한 최근 부산지역 가계소비 흐름 평가(요약)

◈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동 영향이 집중된 **가계부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증가

ㅇ 부산은 가계소비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중요성이 더 높은 상황

⇒ 신용카드 지출액 등 **고빈도 자료**를 활용해 최근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가계소비 **회복 여건**을 평가

◈ 분석 결과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최근 흐름**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나타냄

ㅇ 부산지역 가계소비는 **2023년** 전체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감
ㅇ 특히 **서비스 소비**의 **반등**(pent-up 효과)이 가계소비 흐름을 주도
ㅇ 반면, **재화 소비**는 **부진**이 이어져 **서비스-재화**간 **비동조화** 지속
ㅇ **국외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소비의 **지역 생산활동**에 대한 **기여**는 **축소**
ㅇ **2023년 하반기**부터는 가계소비의 **회복 모멘텀 약화**

◈ **앞으로도 부산지역 가계소비**는 **증가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임금·고용 개선으로 **소득여건**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소비심리**도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

ㅇ 하지만 ①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변화로 **안정적 구매력 개선**은 **미흡**하고, ②그간 가계소비 회복을 뒷받침하던 **축적된 저축**이 **소진**되기 시작한 데다, ③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물가 오름세**와 **가계부채 수준**, **부동산가격** 하락은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

◈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모멘텀 약화가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고 소비가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

Ⅰ. 검토 배경

□ 최근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동 영향이 집중된 **가계부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증가

ㅇ 부산의 경우 가계소비가 지역내 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여타 지역에 비해 중요성이 한층 높은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에서 이용가능한 **통계자료**는 속보성 및 포괄범위 측면에서 **전체 가계소비**의 **흐름**을 읽는 데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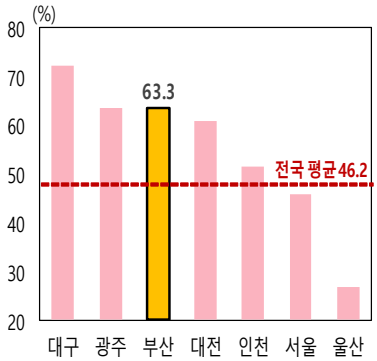
⇒ **신용카드 결제액, 이동성 지표** 등 가계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최근**까지의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가계소비 회복 여건**을 **평가**하고자 함

Ⅱ. 부산지역 가계소비 개황

□ 부산지역 **가계소비 규모**는 2022년 기준 66.0조원으로 GRDP의 63.3%를 차지하며 대구(71.9%), 광주(63.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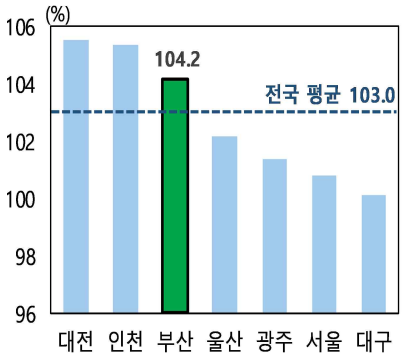
□ 부산지역 가계소비는 **팬데믹 이후 회복**이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른 편**이나, 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는 증가율이 낮고 **추세적**으로도 **하락**하는 모습

GRDP내 가계소비 비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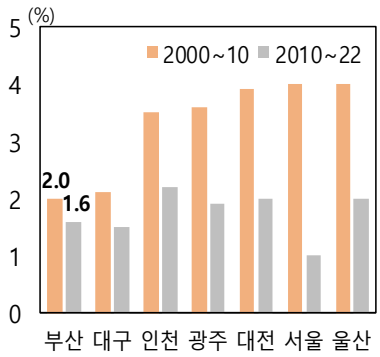
주: 1) 명목, 2022년 기준
자료: 통계청

팬데믹 이후 가계소비 회복률[1)]



주: 1) 2019년을 기준값(100)으로 2022년 가계소비 증가율 계산
자료: 통계청

가계소비 증가율의 추세적 변화



자료: 통계청

Ⅲ.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최근 흐름

1 2023년 중 가계소비의 견조한 증가

□ 부산지역 가계소비는 **2023년 중** 전년대비 3%대 증가하며 **회복세**를 **지속**

○ 전국과 비교하면 2022년(전국 4.1%, 부산 5.3%)에 이어 2023년(1.7%, 3%대)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

2 서비스 소비 반등(pent-up 효과)이 가계소비 흐름을 주도

□ 부문별로 살펴보면 팬데믹 기간 중 억눌렸던(pent-up) **서비스 소비**의 **반등**이 2023년에도 강하게 나타나 **가계소비 증가**를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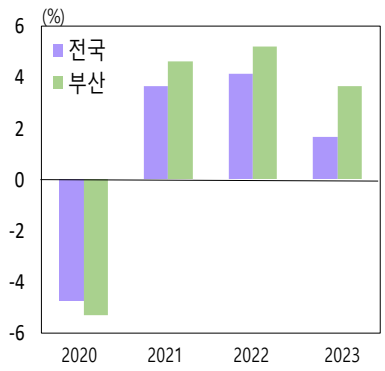
○ 2023년 부산지역 서비스 소비는 과거추세(2010~19년 추세)를 5% 내외 초과하면서 2% 내외인 전국 수준을 크게 상회

○ 팬데믹 기간 소비 위축이 클수록 서비스 소비 회복이 대체로 더디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

부산지역 최근 가계소비 흐름[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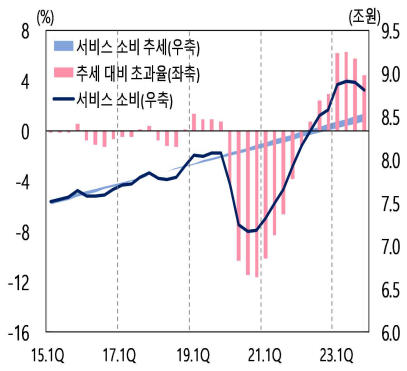
주: 1) 음영은 추정치
2) 계절조정 실질금액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가계소비 증가율 비교[1)]



주: 1) 전국은 GDP 속보치, 부산은 자체추정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체추정

부산지역 서비스 소비[1)2)]



주: 1) 계절조정 기준
2) 추세는 두가지 선형추세(2015~19년, 2010년~19년)의 범위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3 재화 소비는 부진하여 서비스 소비와 비동조화(decoupling)

□ 서비스 소비는 견조한 반면 **재화 소비**는 **미약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가계소비내 **부문간 비동조·괴리**(decoupling) 현상이 지속 확대

○ 재화 소비는 2023년 중 0%대 증가하여 직전년도의 부진(전년대비 -1.2%)이 지속되고 가계소비 내 비중도 2022년 42.8%대에서 2023년 41%대로 하락

4 국외소비의 빠른 확대로 가계소비의 지역경제 기여 약화

□ 지역민들의 해외여행이 과거 수준을 찾아가면서 **국외소비**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이로 인해 **가계소비**가 **지역 및 국내 생산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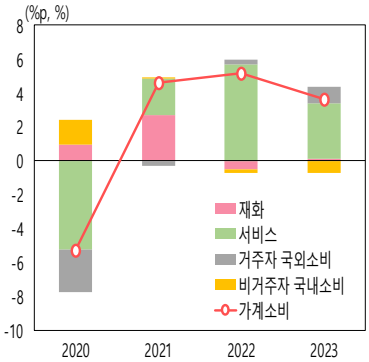
○ 국외소비는 2023년 전체 가계소비 증가의 1/4 정도를 기여하며 가계소비 내 비중도 2021년 1.2%에서 2023년 2%대 중반까지 회복

5 2023년 하반기 이후 회복 모멘텀 크게 약화

□ 부산지역 가계소비는 2023년 전체로는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하반기부터**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 모멘텀**이 **빠르게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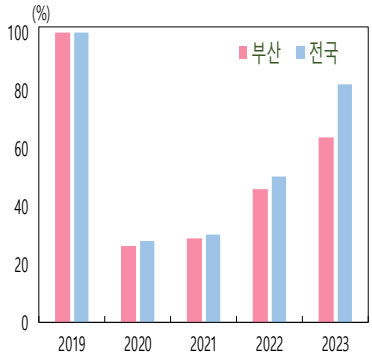
○ 가계소비 증가율은 2023년 상반기 5%대 중반(전년동기대비)이었으나, 하반기들어 1%대로 큰 폭 하락

가계소비 부문별 기여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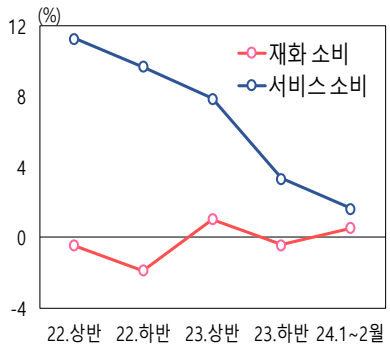
주: 1) 실질금액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국외소비 회복률[1)]



주: 1) 2019년말=100, 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자체추정

재화 및 서비스 회복 모멘텀[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Ⅳ. 향후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회복여건 평가

1 임금·고용 상황은 양호하나 안정적 구매력 개선은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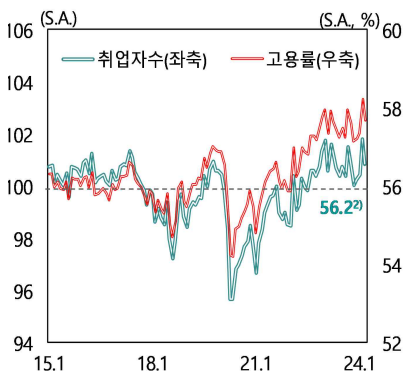
□ 2020년 이후 명목임금(2020~23년 중 연평균 3.7% 상승)과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산지역 가계의 **소득여건**은 **개선 흐름**을 유지

○ 하지만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확대로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인 **상용근로자 실질 총구매력**은 2020~23년 중 연평균 0.5% 증가에 그쳐 전국(3.5%) 및 대도시 평균(3.1%)에 비해 크게 **저조**

2 축적된 가계 저축의 소비지원 역할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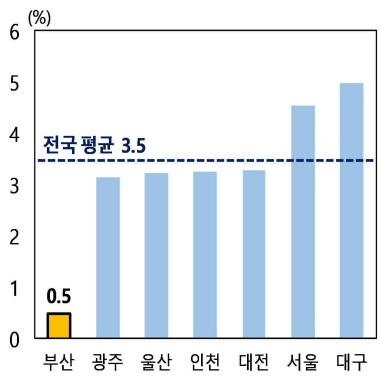
□ 팬데믹 기간 중 **축적된 저축**(forced savings)은 그간 가계소비 회복의 주요 동력이 되었으나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된 데다, **균형 저축률 자체**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소비 전환**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부산 취업자수[1)]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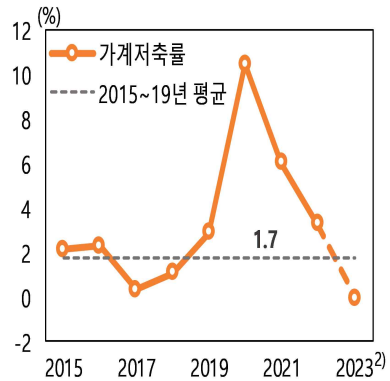
주: 1) 15.1~19.12월 평균=100
2) 15.1~19.12월 고용률 평균
자료: 통계청

상용근로자 실질 총구매력[1)]



주: 1) 상용근로자 실질임금 x 상용근로자 수의 2020~23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통계청, 자체계산

부산지역 가계저축률[1)]



주: 1) (1-민간소비/순처분가능소득)
2) 2023년은 전망치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3 소비심리는 비교적 안정적

□ 2023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 부산은 가계소비의 **심리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최근 들어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 차이(disagreement)가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심리의 **추가 개선**은 **더딜 전망**

4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 수준은 소비를 제약

□ 2022년 이후 **음식료품** 등 필수재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해당품목 지출 비중이 높은 고령층·저소득층의 **가계소비**가 **제약**

□ 또한 부산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2024.1~2월 평균, 119%)이 대도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아 **고금리**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도 소비의 큰 **제약 요인**

5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역(逆) 자산효과도 소비회복을 저해

□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자산효과**(wealth effect) 측면에서도 앞으로 상당기간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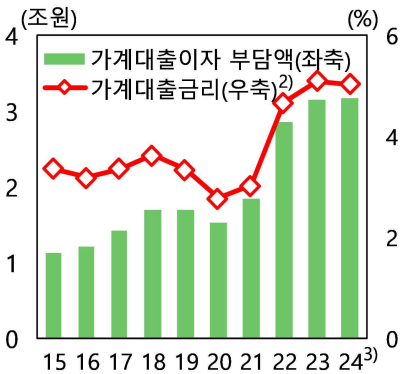
○ 2024년 3월 기준 최고점(2022.5월) 대비 15.5%, 2022년말 대비 9.3% 하락하여 주택가격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평가

○ 부산은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77.9%)이 대도시 중 가장 높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도 대도시 중 서울 다음으로 크게 나타남

소비자심리지수[1]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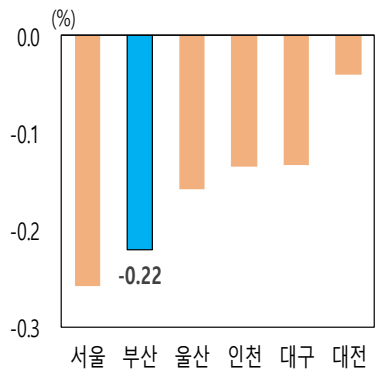
주: 1) 2003~23년 장기평균치(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
자료: 한국은행

부산지역 가계의 이자상환부담[1)2)]



주: 1) 가계대출 잔액 가중평균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추정
2) 예금은행 기준
3) 24.1~2월 평균
자료: 한국은행, 자체계산

주택가격 하락의 소비에 대한 영향[1]



주: 1) 충격반응함수의 1~10분기 평균값 기준
자료: 자체추정

V.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 최근의 부산지역 가계소비 흐름을 살펴본 결과 **2023년 중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는 **회복 모멘텀**이 크게 **약화**

○ ①재화 소비가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②해외소비 확대로 소비가 지역 생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줄었으며, ③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서비스 소비 증가세도 크게 둔화

□ **향후** 부산지역 **가계소비**는 여러 경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가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임금·고용상황 개선으로 소득 여건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소비심리도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①고용의 질 저하로 안정적 소득기반 개선은 미약하며, ②팬데믹 기간 축적된 저축의 소득지원 역할은 약화되는 데다, ③다른 지역 대비 높은 물가 오름세와 가계부채 수준, 부동산가격 하락 등 제반 경제여건도 소비개선에 불리하게 작용

⇒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모멘텀 약화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고** 소비가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

2 시사점

1 **단기적**으로는 고령층 및 저소득층 등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대한 **감내력**이 **약한 가계**를 중심으로 **가계 구매력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

○ 공공요금 인상 유예, 부산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주요 생필품 할인 등의 정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비 위축을 방지

2 부산을 포함한 국내 가계의 해외소비를 **지역내 소비**로 **적극 유도**하여 **소비활동**의 **지역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필요

○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지역민들의 역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특화 문화컨텐츠의 질적 개선 노력으로 지역외로부터의 소비유입도 강화

3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고용 확대**를 통해 가계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여 가계의 **자생력**을 **강화**

4 고령화로 인한 소비성향 하락 및 저축률의 구조적 상승에 대응하여 **고령층**을 위한 **소비컨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산업화**하는 노력도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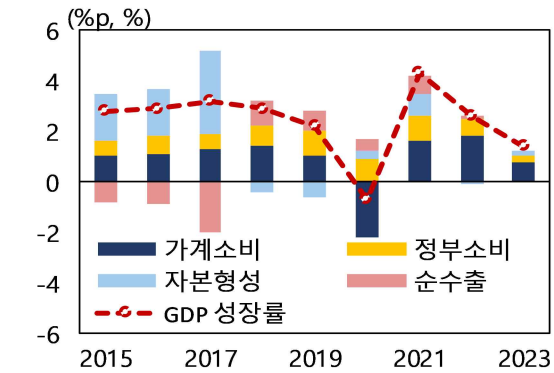
Ⅰ. 검토 배경

1. 최근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동 영향이 집중된 가계부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소득통계(GDP)를 보면 전국 가계소비 증가율이 2023년 중 1.7%에 그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산지역의 경우 가계소비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비해 그 중요성이 한층 높은 상황이다.

2. 하지만,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는 속보성 및 포괄범위 측면에서 가계소비의 최근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가계소비 지표인 GRDP는 2022년까지의 자료만 가용하여 속보성이 현저히 낮고, 소비동향지표들은 속보성은 비교적 높으나 재화 소비 등 가계소비의 일부분만 보여주고 있어 가계소비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소비는 최근 국내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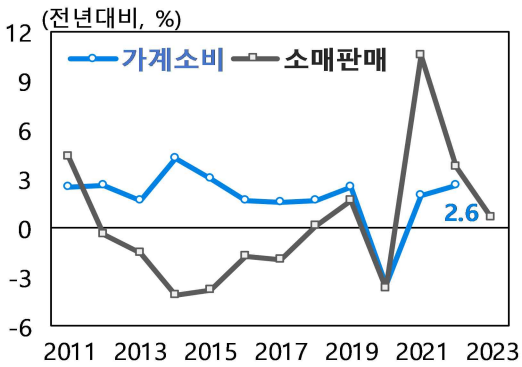
[그림 1] GDP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소매판매액지수를 통해 전체 가계소비 흐름을 읽는 데는 한계

[그림 2] 부산지역 가계소비[1] 및 소매판매[2]



주: 1) GRDP 가계소비, 실질 기준
2) 소매판매액지수, 불변 기준
자료: 통계청

3.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이동성 지표 등 가계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부산지역 가계소비[1]의 최근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가계소비 회복 여건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간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전반적인 추이와 지출구조를 살펴본 후, 고빈도자료를 통해 2023년 이후 최근 흐름을 추정하여 특징적인 움직임을 짚어보고, 향후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회복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민간소비는 가계소비(97%)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3%)로 구성되는데 본고에서는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가계소비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Ⅱ. 부산지역 가계소비 개황[2)]

◈ 2022년까지의 GRDP 통계에서 나타나는 부산지역 가계소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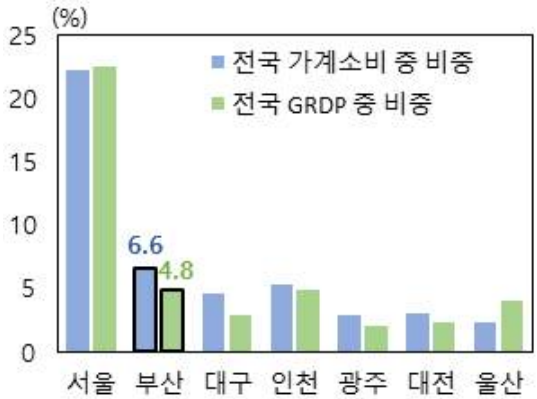
- 전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63.3%)이 여타 지역(전국 46.2%)을 크게 상회
- 지출구조를 보면 팬데믹 전후로 재화는 비중이 확대된 반면, 서비스는 축소되고 국외소비는 절반 이하로 위축
- 팬데믹 이후 회복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편
- 하지만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는 증가율(2010~22년 연평균 1.6%)이 여타 지역보다 낮고 추세적으로도 하락

1 가계소비 규모 및 구조

4. 부산지역 가계소비 규모는 2022년 기준 66.0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계소비(1,000.7조원)의 6.6%, 부산지역 GRDP[3)](104.2조원)의 63.3%를 차지하였다. 가계소비의 전국 대비 비중은 부산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GRDP의 전국 대비 비중(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GR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의 경우 부산이 대구(71.9%), 광주(63.5%)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46.2%)을 크게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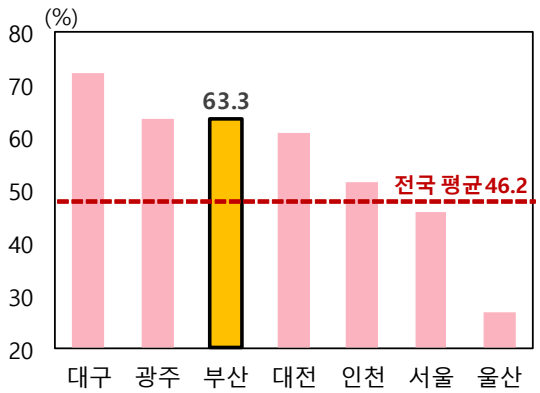
부산지역은 가계소비가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

[그림 3] 전국 대비 지역별 가계소비 및 GRDP 비중[1)]



주: 1) 명목금액, 2022년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4] GRDP내 가계소비 비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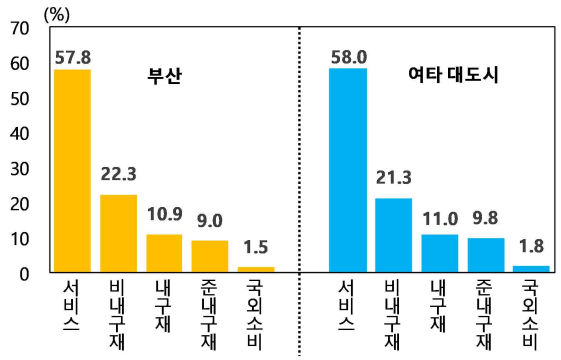
주: 1) 명목금액, 2022년 기준
자료: 통계청

2) 2022년까지의 지역소득(GRDP) 통계에서 나타나는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횡단면적·시계열적 특성(stylized facts)을 정리한 내용이다.
3) 부산지역 GRDP는 가계소비를 포함한 민간소비 65.3%, 설비투자 7.6%, 건설투자 14.2%, 이출입 -14.7% 등으로 구성된다.

5. 부산지역 가계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형태별[4]로는 서비스(2022년 기준 57.8%), 비내구재(22.3%) 지출 비중[5]이 높고, 지출목적별로는 임료 및 수도광열(15.4%), 식료품(11.5%)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 대도시[6]와 비교하여 비내구재(여타 대도시 대비 +1.1%p)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의복 등 준내구재(-0.8%p)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별로는 의료보건(+1.3%p) 비중이 높은 반면, 임료 및 수도광열(-0.4%p) 비중은 낮은데 이는 대도시 중 고령인구 비중[7]이 가장 높은 부산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부산은 여타 대도시 대비 비내구재 비중이 높고 준내구재 비중은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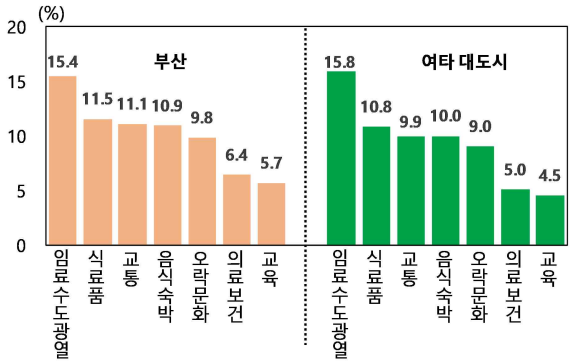
[그림 5] 형태별 지출 비중[1] 비교



주: 1) 2022년 명목금액 기준으로 서비스·재화는 국내소비, 국외소비는 전체 가계소비내 비중
자료: 통계청

부산은 고령화로 의료보건 지출 비중이 높고 임료 및 수도광열 비중은 낮은 편

[그림 6] 목적별 지출 비중[1]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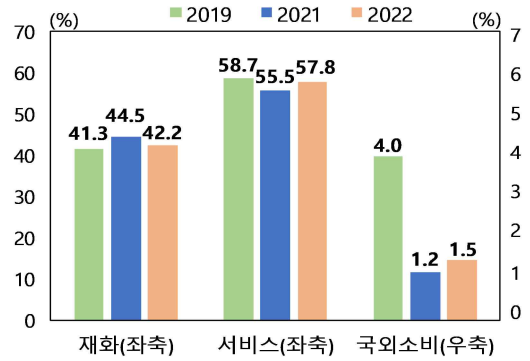
주: 1) 2022년 명목 국내소비내 비중
자료: 통계청

6. 팬데믹 전후 소비구조 변화를 보면 재화 소비는 늘고 서비스 소비는 줄었으며 국외소비는 크게 축소되었다. 재화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전체 가계소비 중 41.3%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 42.2%로 비중이 늘어난 반면, 서비스는 2019년 58.7%에서 2022년 57.8%로, 국외소비는 4.0%에서 1.5%로 축소되었다. 목적별로는 교육(2019년 대비 2022년 +1.0%p), 교통(+0.5%p) 비중은 늘고 의류 및 신발(-0.8%p), 임료 및 수도광열(-0.8%p)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4) 내구재는 재화 중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가구 등을, 준내구재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구재보다는 사용기간이 짧고 구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복, 신발 등을, 비내구재는 지출과 소비가 비교적 연속해서 일어나는 식료품, 차량연료 등을 포함한다.
5) 서비스,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는 국내지출내 비중을, 국외소비는 가계소비내 비중을 의미한다.
6) 본고에서 정의하는 여타 대도시란 부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 및 서울특별시를 의미한다.
7)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전국 23.0%이며, 대도시는 부산 27.1%, 대구 23.5%, 서울 22.1%, 대전 20.4%, 광주 20.1%, 인천 20.0% 등 순으로 나타난다.

팬데믹 이전 대비 재화가 늘고 서비스는 줄었으며 국외소비는 크게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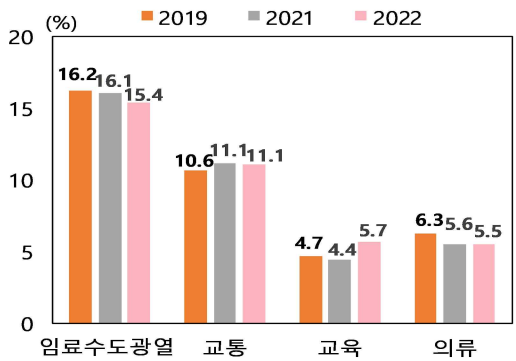
[그림 7] 팬데믹 전후 부산지역 형태별 지출구조 변화[1)]



주: 1) 명목금액 기준
자료: 통계청

목적별로는 교육, 교통이 늘고 임료 및 수도광열은 줄어든 모습

[그림 8] 팬데믹 전후 부산지역 목적별 지출구조 변화[1)]



주: 1) 명목금액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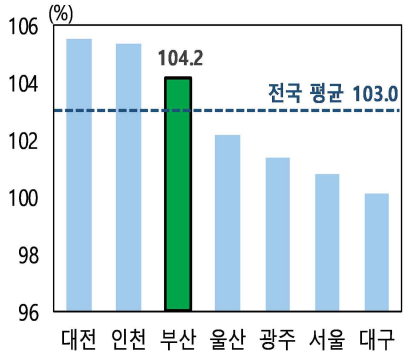
2 가계소비 추이

7. 팬데믹 이후 부산지역 가계소비는 여타 지역에 비해 회복이 빠른 편이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100) 대비 2022년 가계소비 회복률은 부산지역이 104.2로 대도시 중 대전(105.5), 인천(105.4) 다음으로 높았다. 2022년에도 전년대비 5.3% 증가하면서 전국 가계소비 증가율(4.1%)을 상당폭 상회하였다.

8. 다만, 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는 인구유출 등으로 증가율이 낮고 추세적으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22년 중의 연평균 증가율은 부산이 1.6%로 전국(1.9%) 및 대도시 평균(1.7%)을 밑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연평균 1.0%)의 증가율이 가장 낮고 제주(3.6%)가 가장 높아 가계소비에 대한 인구 유출입의 영향[8)]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별로는 2010~22년의 가계소비 증가율이 2000~10년 연평균 증가율(2.0%)보다 낮아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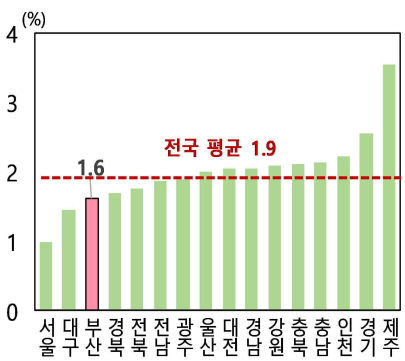
팬데믹 이후 부산지역 가계소비는 회복이 빠른 편이나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하락

[그림 9] 팬데믹 이후 가계소비 회복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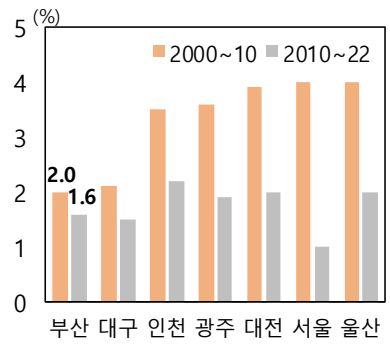
주: 1) 2019년을 기준값(100)으로 2022년 가계소비 증가율 계산
자료: 통계청

[그림 10] 지역별 가계소비 장기평균 증가율[1)]



주: 1) 2010~2022년 연평균
자료: 통계청

[그림 11] 가계소비 증가율의 추세적 변화



자료: 통계청

8) 2010~22년 중 지역별 인구증감율(%): 제주 18.7, 경기 15.3, 인천 7.6, 대구 -5.9, 부산 -7.0, 서울 -8.6

Ⅲ.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최근 흐름

※ 본 장의 내용은 신용카드 등 관련 지표를 통해 대략적인 가계소비 흐름을 추정한 것으로 향후 발표될 지역소득통계(GRDP)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1 분석 방법

9. 본고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모바일 이동량 등 보다 고빈도 정보를 반영한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과 시분해법(temporal disaggregation)을 통해 2023년 이후 최근까지의 부산지역 가계소비를 추정[9]하였다. 지역에서는 가계소비의 흐름을 속보성 있게 보여주는 종합적인 통계지표가 부족한데 가장 속보성이 높은 소비동향지표의 경우 소매판매액은 재화 소비에 한정되어 있고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생산자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서비스 소비만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동 통계들은 부산지역 가계의 소비지출이 아닌 지역내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개념적으로도 상이하기에 분석에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신용카드 데이터는 월 단위로 데이터 입수가 가능하여 시의성이 높고 부산지역 가계의 소비지출만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0.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특징과 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재화, 서비스, 국외소비 등 부문별 소비를 각각 추정하였으며 가계소비는 이를 합산[10]하여 산출하였다. 재화와 서비스는 품목별 신용카드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관련성이 높은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함께 이용하였다. 거주자의 국외소비와 비거주자 국내소비는 신용카드 해외지출액과 외국인의 지역내 신용카드 지출액을 기본으로 하되, 김해 및 인천공항 출입국자수와 외국인의 부산지역 방문객수 정보도 함께 반영하였다.

2 분석 결과 및 주요 특징

① 2023년 중 가계소비 견조한 증가

11. 분석 결과 부산지역 가계소비는 2023년 중 전년대비 3%대 증가하며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과 비교하면 2022년(전국 4.1%, 부산 5.3%)에 이어 2023년(1.7%, 3%대)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19년 추세 증가율이 부산은 1.7%, 전국은 2.2%인 점을 감안하면 부산지역 가계소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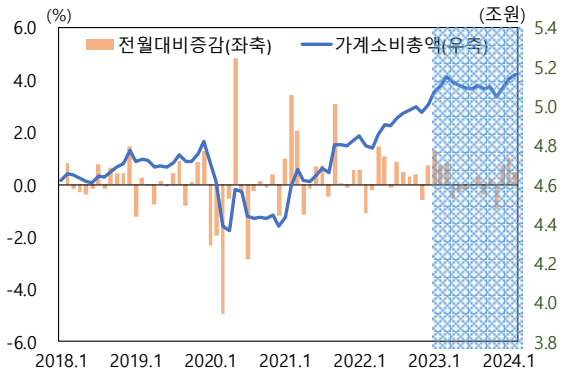
---

9) 2017년~2024년 2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추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1>「부산지역 월별 가계소비 추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가계소비 = 국내소비(재화+서비스) + 국외소비 - 비거주자의 국내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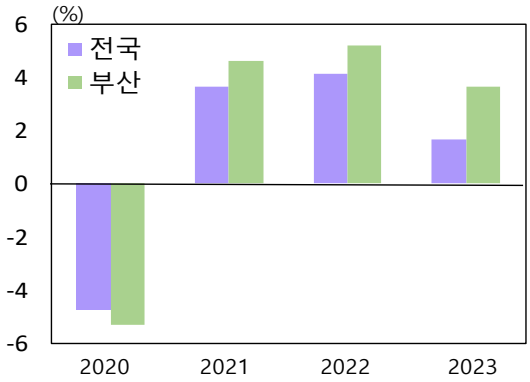
부산지역 가계소비는 2023년 견조한 증가를 보임

[그림 12] 부산지역 최근 가계소비 흐름[1)2)]



주: 1) 음영은 추정치
2) 계절조정 실질금액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그림 13] 가계소비 증가율 비교[1)]



주: 1) 전국은 GDP 속보치, 부산은 자체추정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체추정

② 서비스 소비 반등(pent-up 효과)이 가계소비 흐름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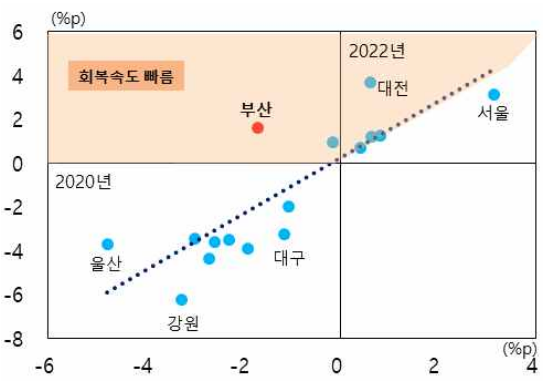
12. 부문별로 살펴보면 팬데믹 기간 중 억눌렸던(pent-up) 서비스 부문의 강한 반등이 2023년 가계소비 증가를 주도하였다. 부산지역 서비스 소비는 2023년 중 과거추세(2010~19년 선형추세)를 5%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2% 내외)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지역축제 등이 대부분 재개된 데다 엑스포 유치 등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외국 관광객 유입도 본격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기간 중 소비 위축이 클수록 이후 서비스 소비 회복이 대체로 더디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부산지역 서비스 소비는 과거 추세를 큰 폭 초과하며 가계소비 증가를 주도

[그림 14] 부산지역 서비스 소비[1)2)]

주: 1) 계절조정 기준
2) 추세는 두가지 선형추세(2015~19년, 2010~19년)의 범위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그림 15] 서비스 소비 회복속도 비교[1)]



주: 1) 서비스 소비 추세 초과율의 전국대비 차이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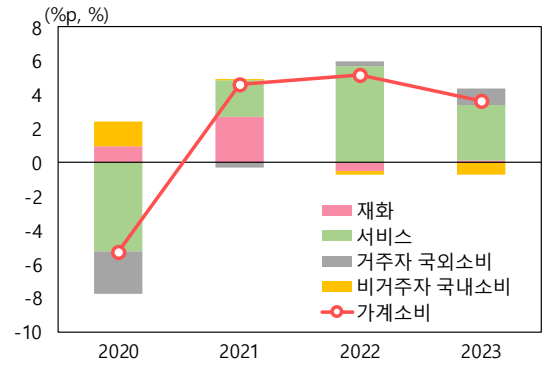
③ 재화 소비는 부진하여 서비스 소비와 비동조화(decoupling)

13. 서비스 소비가 호조를 보인 것과는 달리 재화 소비는 미약한 흐름이 이어졌다. 재화 소비는 2023년 중 0%대 증가하여 직전년도의 부진(전년대비 -1.2%)을 이어갔으며 가계소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재화 소비 비중도 2022년 전체 국내지출 중 42.8%에서 2023년 41%대로 하락하였다.

14. 이에 따라 가계소비내 부문간 비동조·괴리 현상이 지속 확대되었다. 서비스와 재화 소비의 상관계수(수준변수 기준)는 팬데믹 이전인 2017~19년 중 0.8이었으나 팬데믹 기간(2020~21년 중)에는 0.4 내외로 하락하였으며 2022년 이후에도 약 0.5 정도로 추정된다. 팬데믹 기간에는 IT기기, 음식료품 등 재화 소비가 크게 늘어난 반면 대면 서비스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고, 팬데믹 이후 회복기에는 서비스 회복이 가팔라진 반면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내구재[11] 등 재화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두 소비간 비동조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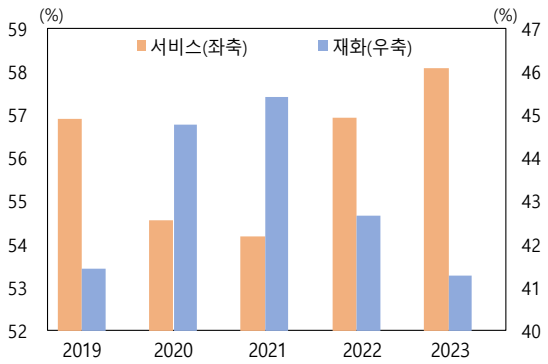
재화 소비는 부진이 지속되어 가계소비에 대한 기여가 약화되고 서비스 소비와 비동조화

[그림 16] 가계소비 부문별 기여도[1]



주: 1) 실질금액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그림 17] 재화 및 서비스 소비 비중[1)2)]



주: 1) 가계소비내 비중
2) 실질금액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④ 국외소비의 빠른 확대로 가계소비의 지역경제 기여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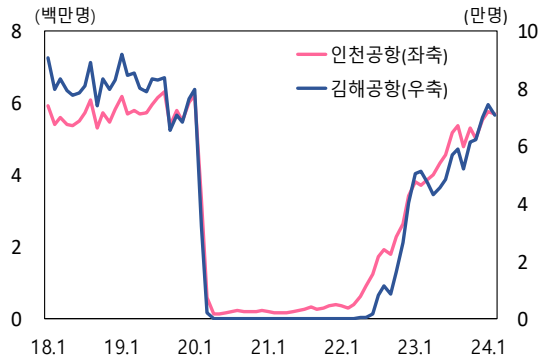
15. 지역민들의 해외여행이 과거 수준을 회복해 가면서 국외소비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국외소비는 2023년 중 전년대비 큰 폭(+70%대) 늘어 전체 가계소비 증가의 1/4 정도를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소비 내 비중도 2021년 1.2%에서 2023년 2%대 중반까지 상승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2019년 기준 3.9%)으로 점차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11) 금리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내구재에 대해 가장 크게 나타나고, 다음이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박경훈 외, 2022)
12) 이러한 점은 가계소비를 소매판매액지수 등 일부지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역설한다.

16. 국외소비 증가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소비가 지역내 생산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전체의 20% 정도[13]로 추정되는데 부산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의 지역내 생산 기여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현재 부산의 국외소비 회복률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대비 2023년 국외소비 회복률이 부산의 경우 60% 내외로 전국 평균(67.7%)을 하회하면서 향후 반등 여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14]. 소비관련 대외거래 측면에서도 2024년 2월 현재 부산 지역민들의 국외소비(수입)가 외국인의 지역내 소비(수출)보다 회복 수준이 낮아[15] 향후 여행수지가 추가 악화될 경우 생산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들의 국외여행이 빠르게 확대되며 2019년 수준에 점차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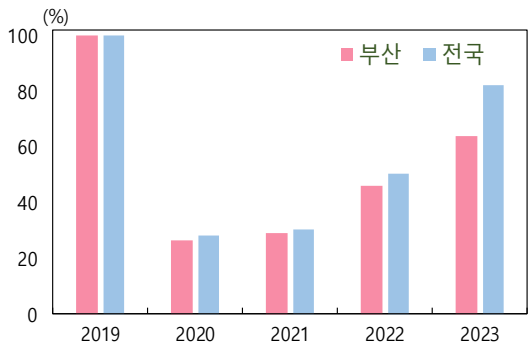
[그림 18] 주요 공항 출입국자수[1)]



주: 1) 각 공항 국제선 여객 승객수
자료: 항공포털

향후 국외소비 반등 여력을 감안하면 부산은 국외소비 중요도가 전국보다 높은 상황

[그림 19] 전국 및 부산지역 국외소비 회복률[1)]



주: 1) 2019년말=100, 매년 4/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자체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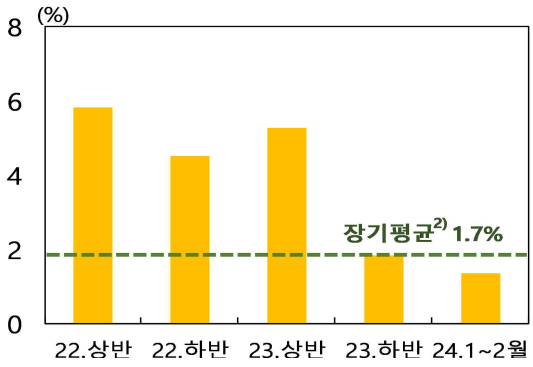
⑤ 2023년 하반기부터는 가계소비 회복 모멘텀이 크게 약화

17. 2023년 전체로는 가계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3년 하반기 이후의 회복 모멘텀은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이다. 가계소비 증가율은 2023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5%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1%대로 하락하였고, 2024년 1~2월 중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회복 모멘텀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2024년 1~2월 중 재화 소비 증가율이 장기평균(2010~22년 연평균 1.9%)을 크게 밑돌았으며 서비스 소비 증가율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장기평균(1.5%)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13) 한국관광공사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해외여행을 위해 의복·악세사리, 여행사 등에서 전체 지출의 22% 정도를 국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12)
14)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발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전세계 항공 여객수가 팬데믹 이전(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는데, 부산도 이러한 추세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5) 2023년 중 비거주자의 지역내 소비는 2019년의 70%대 중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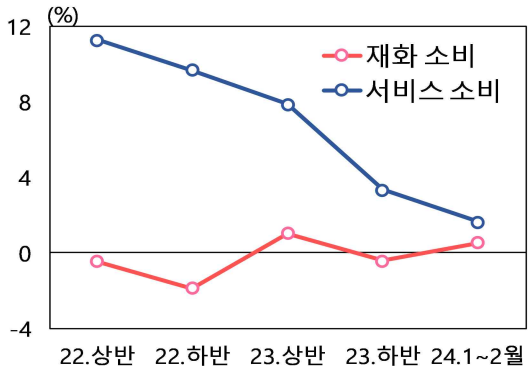
2023년 하반기부터 가계소비 회복 모멘텀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크게 약화되는 모습

[그림 20] 가계소비 회복 모멘텀[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10~22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그림 21] 재화 및 서비스 회복 모멘텀[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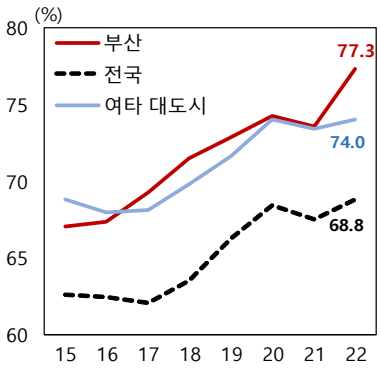
Ⅳ. 향후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회복여건 평가

1 가계 소득

18. 부산지역 가계의 소득여건은 2020년 이후 명목임금과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임금소득은 부산 지역민들의 가계 소득원으로서 중요도가 높은데[16], 2020~23년 중 부산지역 명목임금(상용근로자 기준) 상승률은 연평균 3.7%로 전국 평균(3.6%)을 소폭 상회하는 등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 고용상황도 취업자수가 2022년 8월 이후 장기평균치를 지속 상회하고 고용률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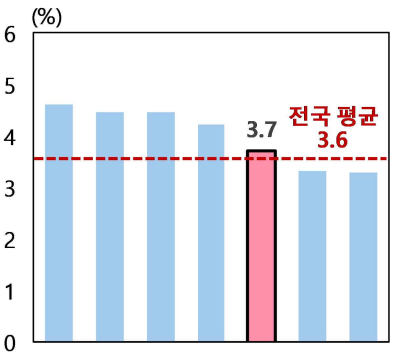
명목임금과 고용은 2020년 이후 양호한 회복세를 유지

[그림 22] 피용자보수비율[1]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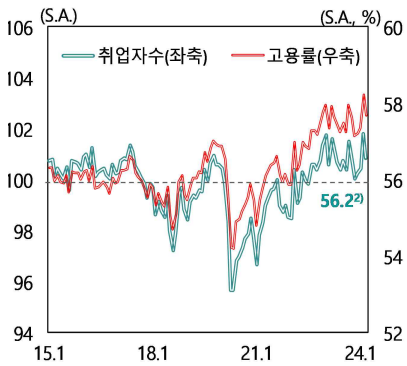
주: 1) 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영업잉여+순재산소득) x 100
자료: 통계청

[그림 23] 명목임금 증가율[1]



주: 1) 2020~23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통계청

[그림 24] 부산 취업자수[1] 및 고용률



주: 1) 15.1~19.12월 평균=100
2) 15.1~19.12월 고용률 평균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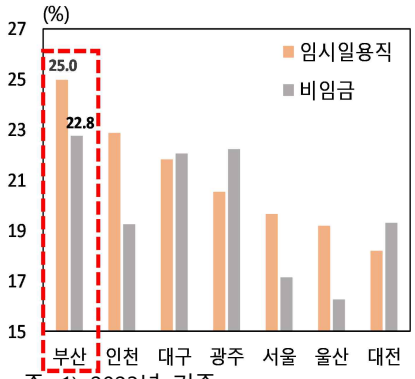
19. 하지만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 변화로 가계소득 안정성 측면에서는 취약성이 드러난다. 부산은 임시일용직 비중(25.0%)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22.8%) 또한 대도시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낸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2023년 부산지역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019년 22.5% → 2023년 25.0%)은 늘어난 반면 상용직근로자 비중은 감소(26.8% → 24.2%)하여 고용의 질적 회복이 더딘 것으로 판단된다.

16) 부산지역 개인의 피용자보수비율은 2022년 기준 77.3%로 여타 대도시(74.0%) 및 전국 평균(68.8%)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20. 이에 따라 지역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인 상용근로자의 구매력[17]은 전국과 비교하여 개선속도가 크게 미약한 수준이다. 부산지역의 상용근로자 실질 총구매력은 2020~23년 중 연평균 0.5% 증가하여 전국(3.5%) 및 대도시 평균(3.1%)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이후 명목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상용근로자수 증가율(1.3%)이 전국(11.4%) 및 여타 대도시 평균(10.4%)을 크게 밑도는 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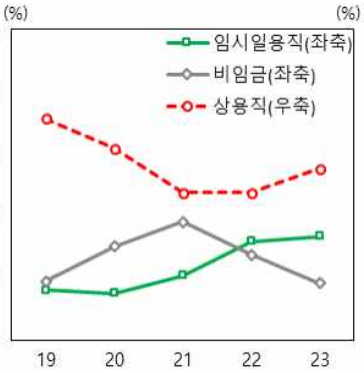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확대로 부산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개선은 전국에 비해 크게 미약

[그림 25] 지역별 근로자 비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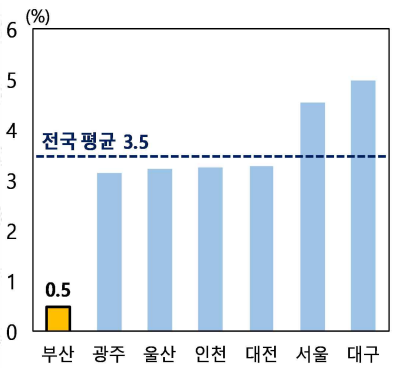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26] 부산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7] 상용근로자 실질 총구매력[1)]



주: 1) 상용근로자 실질임금x상용근로자 수의 2020~23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통계청, 자체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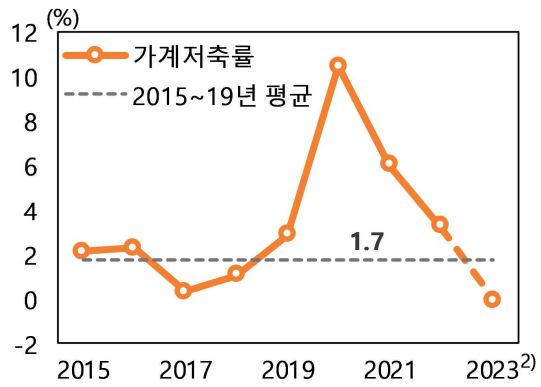
2 축적된 저축

21. 팬데믹 기간 중 축적된 저축(forced savings)은 그간 가계소비 회복의 주요 동력이었으나 2023년 이후 일정부분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가계소비를 지원하는 역할은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지역 가계 저축률[18]은 팬데믹 기간인 2020년 10.5%까지 상승하였으나 2022년 3.3%로 하락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2015~19년 평균 1.7%)으로 거의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22년에 이미 과거 저축률 수준을 크게 하회하면서 축적된 저축이 상당 부분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을 포함한 다른 대도시들도 2023년 이후에는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23년의 소비 및 소득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부산의 경우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신규 저축은 줄고 축적된 저축도 일정부분 사용된 것으로 추정[19]된다.

17) 상용근로자 실질 총구매력 = (상용근로자수×상용근로자 임금총액)/소비자물가지수
18) 소득계정의 개인저축률 기준이며 [개인저축률 = (개인순처분가능소득-민간소비)/순처분가능소득×100]으로 계산하였다.
19) 가계소비 및 순처분가능소득을 추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자세한 추정방법은 <참고 3>「부산지역 가계저축률 추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팬데믹 기간 중 축적된 저축이 소진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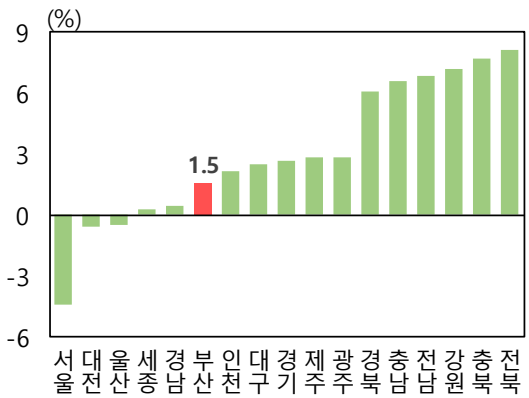
[그림 28] 부산지역 가계저축률[1)]



주: 1) (1-민간소비/순처분가능소득)×100
2) 2023년은 전망치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대도시 저축률은 팬데믹 이후 크게 낮아져 서울의 흐름을 뒤이을 것으로 예상

[그림 29] 지역별 초과저축률[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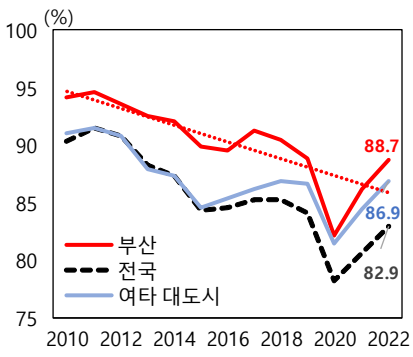


주: 1) 2015~19년 평균 대비 2022년 가계저축률 초과분
자료: 통계청, 자체계산

22. 또한 부산지역은 소비성향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균형 저축률 자체가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저축의 소비전환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이후 지속 하락해 왔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층에서 소비성향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고령화 진전 등에 따른 예비적 저축(60대 이상),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30대) 증가 등으로 30대와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성향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 중 60대 이상의 경우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소비성향이 구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20]되는 데다 60대 이상 인구비중은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고령화 진전[21]에 따른 균형 저축률 상승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평균소비성향은 지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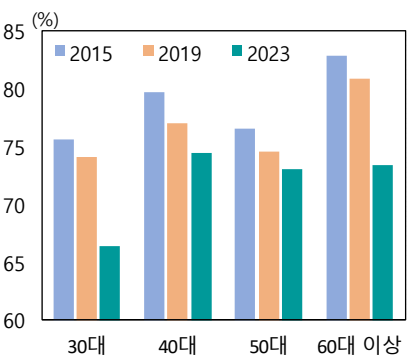
[그림 30] 가계 평균소비성향[1)]



주: 1) 빨간색 점선은 부산지역 가계 소비성향 추세선
자료: 통계청, 자체계산

30대 및 60대 이상 소비성향이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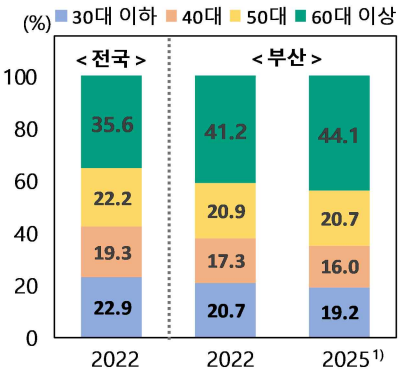
[그림 31] 부산지역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자료: 부산광역시, 자체계산

고령화 진전에 따라 소비성향이 구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그림 32] 2022년 연령별 가구비중



주: 1) 2025년은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22) 전망치
자료: 통계청

20) 권규호(2016)는 기대수명 증가를, 홍기석·전영준(2018)은 고령화로 인한 유증동기의 소비감소를 저축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21)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60대 이상 가구 비중은 2025년 44.1%, 2030년 49.4%로 전망된다.

3 소비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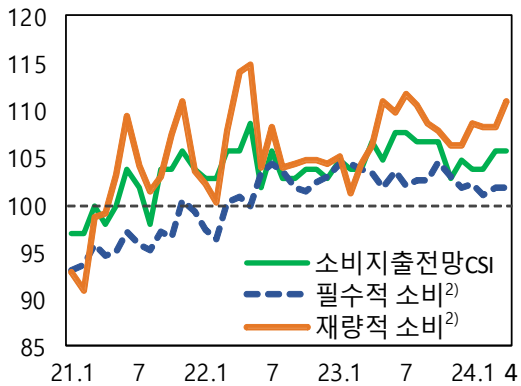
23. 부산은 소비자심리지수가 2023년 하반기 이후 기준치를 지속 상회하고 있어 가계 소비의 심리적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출전망CSI를 항목별로 보면 의료·주거·교통비 등 필수적 소비가 장기평균(2008년~2023년)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행·외식·문화생활비 등 재량적 소비지출 전망도 최근 들어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심리적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

[그림 33] 소비자심리지수[1] 추이

주: 1) 2003~23년 장기평균치(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
자료: 한국은행

[그림 34] 부산지역 소비지출전망CSI[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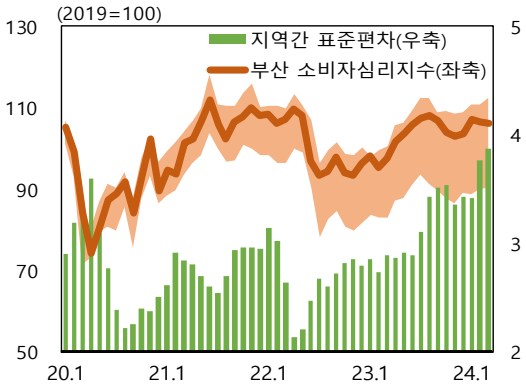
주: 1) 항목별로 장기평균(2008~23년=100) 기준 변환 후 평균 합산
2) 필수적 소비는 의료·주거·교통·통신비, 재량적 소비는 여행·외식·문화생활비 평균
자료: 한국은행

24. 다만 최근 들어 경제상황에 대한 가계들의 인식 차이(disagreement)가 확대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22]함에 따라 소비심리의 추가 개선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심리지수의 지역별 분포, 향후 경기전망의 연령별 분포 등 주요 서베이 지표들의 응답분포가 2024년 들어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가계가 인식하는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22) 경기, 물가 등에 대한 서베이자료의 응답편차는 경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활용된다.(Bomberger, 1996, Krueger·Pavlova,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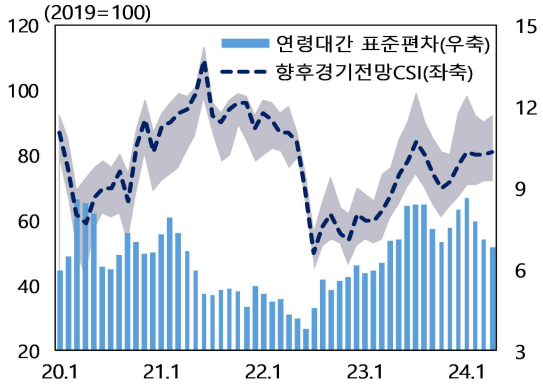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가계간 인식차이가 확대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

[그림 35] 지역간 소비심리 편차[1)]



주: 1) 음영은 전국 13개 지역의 최대·최소값 범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6] 향후경기전망CSI 연령대별 편차[1)]



주: 1) 전국 기준
2) 음영은 연령대별 향후 경기전망CSI의 최대최소값 범위
자료: 한국은행

4 물가 및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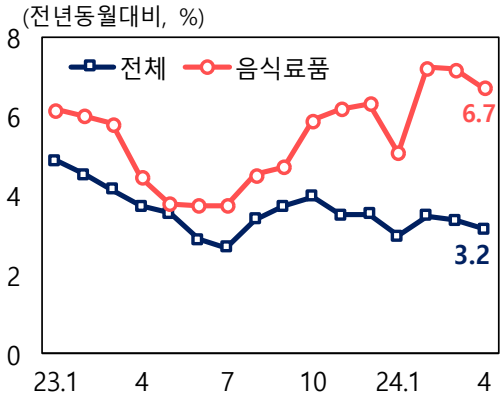
25. 2022년 이후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실질 구매력 하락이 가계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4월 기준 부산지역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3.2%로 2023년(전년동기대비 3.7%)에 비해 하락하고 있으나 속도가 더디고 전국 평균(2.9%)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26. 특히 비중이 높고 지출이 경직적인 음식료품의 높은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지역 음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2024년 4월 전년동기대비 6.7%로 전국 평균(5.9%)을 상당폭 상회하였으며 전년(5.1%)에 비해서도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고령층[23)]과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구매력이 하락[24)]하면 소비지출을 크게 줄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식료품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여타 소비품목에 대한 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3) 홍기석(2021)은 고령층의 경우 일시적 소득변동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24) Edelstein·Kilian(2009)는 물가 상승에 따른 여타 품목에 대한 구매력 하락을 재량적 소득(discretionary income) 감소로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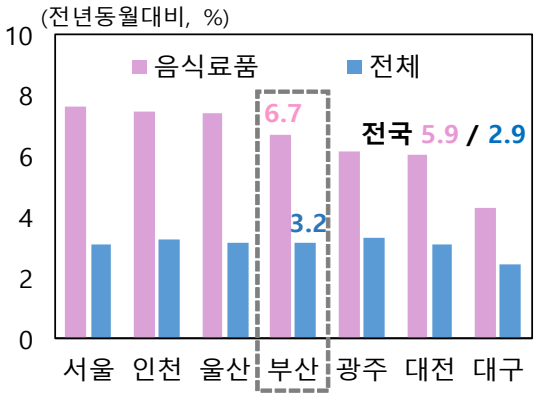
전반적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음식료품 가격 오름세가 큰 폭 확대

[그림 37] 부산지역 물가상승률



자료: 통계청

[그림 38] 지역별 물가상승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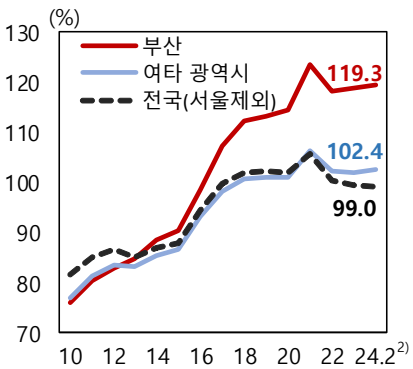


주: 1) 2024년 4월 기준
자료: 통계청

27. 아울러 부산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도 소비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이전 전국 평균을 하회했던 부산지역의 가계대출은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고, 팬데믹 전후에는 전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져 2024년 1~2월 기준 부산지역의 처분가능소득(2022년 기준)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19%로 서울(219%)을 제외한 대도시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이후에는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가계의 이자부담액은 2024년 2월 기준 2017~19년 평균 수준의 두 배(19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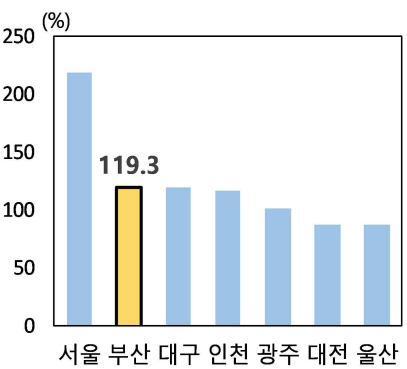
부산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이 큰 상황

[그림 39] 가계대출 비율[1)]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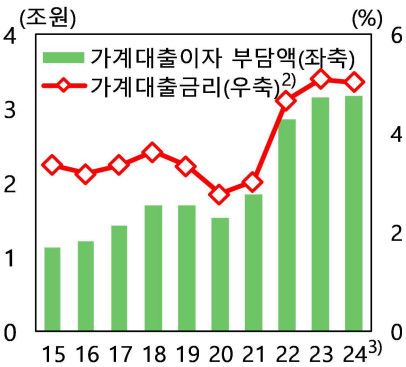
주: 1) 개인의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평잔 기준
2) 2023, 24년의 경우 2022년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40]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1)]



주: 1) 2022년 개인의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2024.1~2월 가계대출 평잔 비중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41] 부산지역 가계의 이자상환부담[1)2)]



주: 1) 가계대출 잔액과 가중평균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추정
2) 예금은행 기준
3) 24.1~2월 평균
자료: 한국은행, 자체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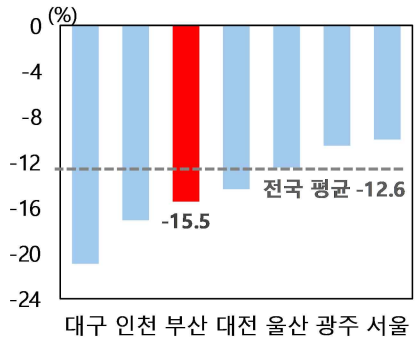
5 주택 가격

28. 또한 부산은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자산효과(wealth effect) 측면에서도 앞으로 상당기간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4년 3월 기준 최고점(2022년 5월) 대비 15.5%, 2022년말 대비 9.3% 하락하며 최근 들어 전국에서 주택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게다가 부산은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77.9%)도 대도시 중 가장 높아 부동산 가격 변동이 전체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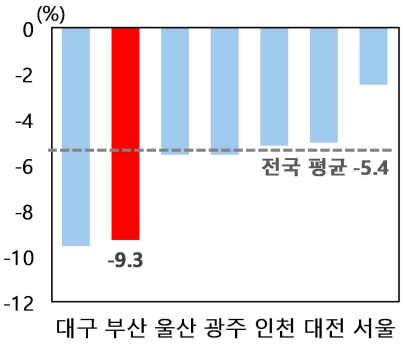
부산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평가

2024.3월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폭

[그림 42] 최고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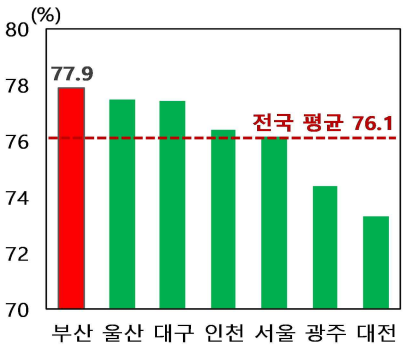
[그림 43] 2022년말 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산지역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

[그림 44] 가계 실물자산 비중[1)]



주: 1) 2022년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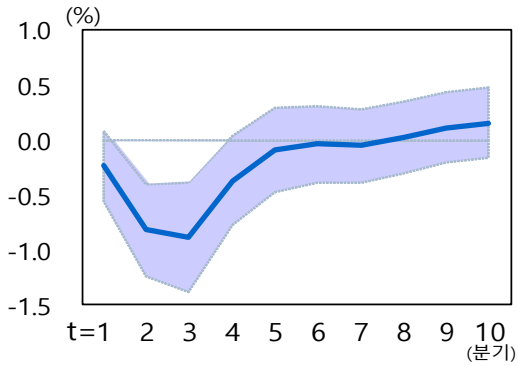
29. 실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25)] 결과에서도 부산은 주택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VAR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별 자산효과를 추정해 보면 아파트가격 1% 하락 충격에 따른 소비 감소는 부산이 대도시 중 서울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25) 지역별 물가상승률, 지역별 소득 및 소비, 주가지수, 아파트매매가격, 금리 등 6변수로 구성된 구조VAR모형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분석대상 기간은 데이터 가용성 및 팬데믹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2000.1/4분기~2019.4/4분기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주택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 추정」 참조하기 바란다.

부산은 여타 지역에 비해 주택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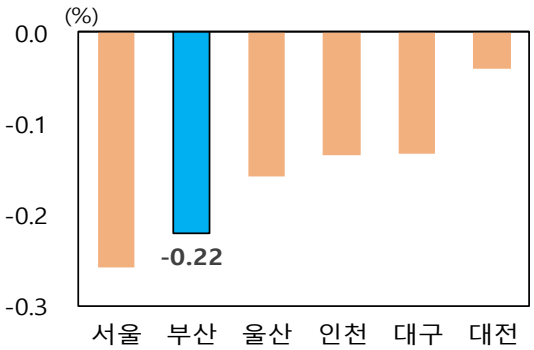
주택가격 하락의 소비에 대한 영향[1)]

[그림 45] 부산지역 영향[2)]



주: 1) 아파트가격 1% 하락에 대한 소비 반응
2) 음영은 2표준오차 신뢰구간
자료: 자체추정

[그림 46] 지역별 영향 비교[1)]



주: 1) 충격반응함수의 1~10분기 평균값 기준
자료: 자체추정

Ⅴ.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30. 최근의 부산지역 가계소비 흐름을 살펴본 결과, 2023년 전체로는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하반기부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소비는 2023년 중 팬데믹 기간 억눌린 소비(pent-up)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른 반등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재화 소비가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해외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소비가 지역 생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향후 부산지역 가계소비는 여러 경제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가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소비심리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간 가계소비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던 축적된 저축이 소진되기 시작하였고,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개선으로 임금소득의 안정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 수준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도 소비 개선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호한 고용, 안정적인 소비심리는 소비 개선 요인으로, 축적된 저축 소진, 임시일용직 증가, 고물가 지속 및 이자상환 부담 확대 등은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

[표 1] 부산지역 가계소비 회복여건

항 목	개선 요인	제약 요인
소비 여력	▪ 명목임금 상승 ▪ 양호한 고용상황	▪ 축적된 저축 소진 ▪ 임시일용직 비중 증가
소비 심리	▪ 소비심리 개선	▪ 경제 불확실성 증가
경제 여건	-	▪ 고물가 지속 ▪ 이자상환 부담 확대 ▪ 주택가격 하락

2 시사점

32. 부산지역 가계소비의 모멘텀 약화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 앞으로도 소비가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3. ① 단기적으로는 고령층 및 저소득층 등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대한 감내력이 약한 가계를 중심으로 가계 구매력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음식료품 등 필수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해당품목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가계의 부담이 높은 상황이므로 공공요금 인상분 유예, 부산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주요 생필품 할인 등의 정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비 위축을 방지할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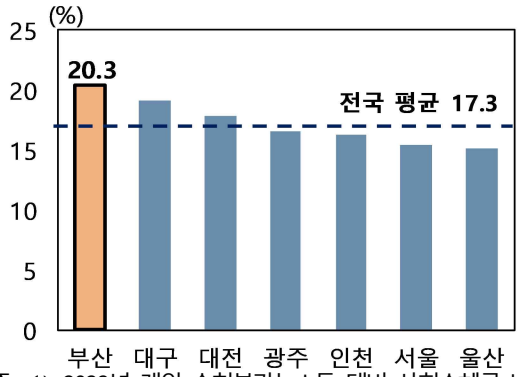
있다. 의료서비스 등 필수적 소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재량적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34. [2] 또한 부산을 포함한 국내 가계의 해외소비를 지역내 소비로 적극 유도하여 소비활동의 지역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산주민들의 지역내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데, 동백전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내 각종 행사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역특화 문화컨텐츠를 꾸준히 개발[26]하고, 교통·숙박 할인쿠폰[27] 발행 등 소비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외 내국인의 소비유입도 촉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특히 최근 경남·울산 등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소비유입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권역내 교통망 확충, 인접지 관광·쇼핑시설 개발 등을 통해 동남권 내 소비 연계도 강화해 나갈 필요[28]가 있다.

35. [3]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고용 확대를 통해 가계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여 가계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부산지역은 고용기회 및 임금보상 측면에서 고용의 질이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29]되는 만큼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늘려 지역외 인력유출을 막고 평균임금을 높이는 정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고령층의 추가적인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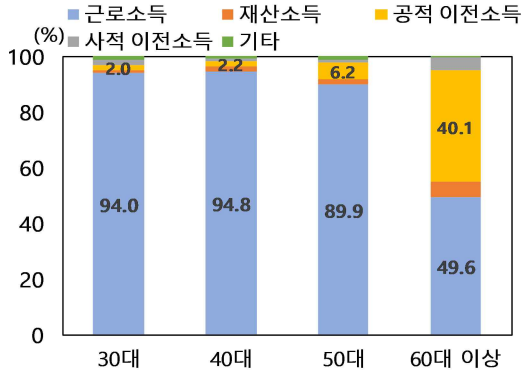
부산은 고령화 등으로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그림 47] 공적이전소득 의존도[1)]



주: 1) 2022년 개인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사회수혜금 비중
자료: 통계청

[그림 48] 부산지역 연령대별 소득원[1)]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26) 최근 부산시는 2024년 10월 국제영화제, 락페스티벌 등 부산 대표 행사를 '옥토버 부산페스티벌'(가칭)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개최하고 입장권 결합 판매, 연계 행사 신설 등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7) 「2023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부산시·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① 복잡한 시내교통, ② 먼 거리, ③ 숙박비 등 여행비용 부담(21%) 등을 부산 재방문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28)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역 소비유출입의 특징과 동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정책적 시사점」(문수성·김지원, 2024) 참조하기 바란다.

29)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각 지역 고용의 질을 ①고용기회, ②고용안정성, ③능력개발, ④임금보상, ⑤양성평등, ⑥고용시간 등 6개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부산은 고용기회가 전국에서 가장 낮고, 임금보상도 대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고용의 질 평가」(이예리, 2022년) 참조하기 바란다.

36. ④ 마지막으로 고령층을 위한 소비컨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산업화하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지역특화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액티브 시니어 등을 위한 맞춤형 여행·문화·공연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 공급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소비성향 하락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참고 1>

부산지역 월별 가계소비 추정

□ 연간 GRDP 가계소비를 바탕으로 월별 가계소비 추정을 위해 ①연간GRDP → 분기GRDP 생성(1단계) ②분기GRDP → 월별 가계소비 도출(2단계)의 2단계 추정법을 활용

○ Bernanke · Gertler · Watson(1997) 등을 참고하여 각 단계에서 시분해(temporal disaggregation)를 위한 상태-공간모형(state-space model)을 설정

— 부문별 소비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ARX(1) 모형(autoregressive with exogenous variables)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

■ $y_t = \rho y_{t-1/n} + \beta z_t + u_t,\ u_t \sim N(0,\ \sigma^2),\ t = 1/n,\ 2/n,\ 3/n,\ \cdots$
단, y_t: 부문별 소비의 고빈도 비관측 증가율, z_t: 관련지표(exogenous variables), $n = 4$(1단계, 연간내 분기수) 또는 $n = 3$(2단계, 분기내 월수)

— 이러한 가정하에 상태공간모형의 관측방정식과 상태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

■ $Q_t = TY_t'\ ,\quad t = 1,\ 2,\ 3,\ \cdots$ (1) (관측방정식)
■ $Y_t' = \Lambda Y_{t-1}' + BZ_t' + \Theta U_t'$ (2) (상태방정식)
단, Q_t: 부문별 소비의 저빈도 관측 증가율,
$Y_t = (y_t\ y_{t-1/n}\ \cdots\ y_{t-(n-1)/n})$, $Z_t = (z_t\ z_{t-1/n}\ \cdots\ z_{t-(n-1)/n})$,
$U_t = (u_t\ u_{t-1/n}\ \cdots\ u_{t-(n-1)/n})$, $u_t \sim N(0,\ \sigma^2)$

$$T = (\underbrace{1/n\ \cdots\ 1/n}_{1\times n}),\ \Lambda = \begin{pmatrix} \rho^n & 0 & \cdots & 0 \\ \rho^{n-1} & 0 & \cdots & 0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rho & 0 & \cdots & 0 \end{pmatrix},\ B = \begin{pmatrix} \beta & \beta\rho & \cdots & \beta\rho^{n-1} \\ 0 & \beta & \cdots & \beta\rho^{n-2}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0 & 0 & \cdots & \beta \end{pmatrix},\ \Theta = \begin{pmatrix} 1 & \rho & \cdots & \rho^{n-1} \\ 0 & 1 & \cdots & \rho^{n-2}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0 & 0 & \cdots & 1 \end{pmatrix}$$

○ 관련지표 z_t는 각 부문별 소비 흐름을 반영하는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추출한 공통요인(common factor)을 활용

— (공통요인추출 모형) 공통요인 추출을 위해 Doz *et al.*(2011)을 따라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설정

■ N개의 시계열이 T개의 시점에서 관측된 자료가 X_t이고, 동 자료가 VAR(r)의 확률과정을 따르는 k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될 때, 동태요인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X_{i,t} = F_t\Lambda_i + e_{i,t}$ (3) (관측방정식)
‣ $F_t = B_1F_{t-1} + \cdots + B_rF_{t-r} + u_t$ (4) (상태방정식)

단, $X_{i,t}$: t시점에서 시계열 i의 값
Λ_i: $(k \times 1)$ 팩터로딩(factor loading),
F_t: t시점에서 $(1 \times k)$ 요인벡터
B_r: $(k \times k)$ 계수행렬, r: VAR모형의 시차(lag order)
$e_t \sim N(0_{N\times 1},\ \Sigma_{N\times N}),\ u_t \sim N(0_{k\times 1},\ \Sigma_{k\times k}),\ E(u_t\epsilon_t) = 0$

- 본고에서는 데이터 가용성 등을 감안하여 $k = r = 1$로 가정
- 초기 F_t와 계수들을 주성분분석과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후 칼만스무딩(Kalman smoothing)과 EM(Expectation and Maximization) 알고리즘으로 갱신

부문별 공통요인 추출시 활용 통계

	1단계	2단계
■ 재화소비	• 업종별 소매판매액지수[1] • 전국 소매판매액지수[1]	• 품목별(18개) 신용카드 지출액[3]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3]
■ 서비스소비	• 업종별 서비스생산지수[1]	• 품목별(13개) 신용카드 지출액[3]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3]
■ 거주자 국외소비	• 전국 거주자 국외소비(GDP)[2]	• 신용카드 해외 지출액[3] • 김해 및 인천공항 출입국자수[3]
■ 비거주자 국내소비	• 전국 비거주자 국내소비(GDP)[2]	• 폼목별(15개) 외국인 지역내 신용카드 지출[4] • 부산방문 외국인수(KT, SKT 모바일이동량)[4]

주: 1) 2010.1/4분기~2022.4/4분기 2) 1995.1/4분기~2022.4/4분기
3) 2017.1월~2024.2월. 신용카드 지출액은 해당품목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 후 이용
4) 2018.1월~2024.2월
자료: 신한카드,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은행

모수 추정 결과[1)2)]

	재화소비	서비스소비	거주자 국외소비	비거주자 국내소비
ρ	0.24* (0.14)	0.83***(0.05)	0.82***(0.07)	0.54***(0.14)
β_1	1.67*** (0.53)	1.58***(0.38)	8.25***(2.78)	23.81***(6.74)
β_2[3)]	3.16*** (0.45)	– (–)	– (–)	– (–)
σ	3.07*** (0.59)	1.64***(0.27)	13.11***(2.27)	25.27***(5.58)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 ) 내는 추정치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s)
3) 재화는 $k = 2$로 설정

<참고 2>

주택가격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 Ludvigson et al.(2002)* 등을 참고하여 구조VAR 모델을 추정하여 지역별 주택가격 충격이 해당지역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

* Ludvigson, S., Steindel, C., Lettau, M., 2002,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Through the Consumption Wealth Channel, *FSBNY Economic Policy Review*

o **(추정모형)** $AY_t = B_0 + \sum_j B_j Y_{t-j} + \epsilon_t$**,** $\epsilon_t \sim N(0, \Sigma)$

단, $Y_t \equiv [\pi^r_t, Z^r_t, C^r_t, K_t, H^r_t, i_t]$, π^r_t는 r 지역의 물가상승률, Z_t는 소득, C_t는 소비, K_t는 주가지수, H_t는 주택가격, i_t는 금리를 의미

- 당기제약(A)의 경우 Ludvigson et al.(2002)를 준용하여 ①자산 이외의 변수들은 하방삼각(lower triangle) 제약을 따르며, ②자산가격은 당기 소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A_{[4,3]} = A_{[5,3]} = 0$), ③통화정책은 자산가격을 타게팅하지 않고($A_{[6,4]} = A_{[6,5]} = 0$), ④ 지역 변수들은 당기에 전국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을 도입
- AIC, BIC 등 정보기준(Information Criteria)과 최우추정(MLE)의 수렴여부 등을 감안하여 $j = 2$로 설정

o **(데이터)** 추정 데이터는 지역별 소비자물가상승률, GRDP, GRDP 가계소비, Kospi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CD(90일) 금리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0년 1/4분기~2019년4/4분기로 함

- 연간으로만 발표되는 GRDP 및 GRDP 가계소비의 경우 <참고 1>의 방법으로 분기화한 수치를 적용
-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수준변수를, 그 외에는 로그변환값을 사용

<참고 3>

부산지역 개인저축률 추정

□ 최근 부산지역의 소비 여력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으로 2023년 중 민간소비, 처분가능소득을 추정하여 개인저축률*을 도출

* 개인저축률 = (순처분가능소득–민간소비)/순처분가능소득

o **(처분가능소득)** 아래의 패널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값에 2023년 설명변수를 적용하여 2023년 중 처분가능소득을 추정

■ 모형: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psilon_{it}, \quad \epsilon_{it} \sim N(0, \Sigma)$
단 , Y_{it} 는 i지역 처분가능소득, X_{it}는 i 지역 설명변수로서 명목임금, 취업자수, u_i는 지역별 고정효과를 의미

■ 데이터: 처분가능소득은 지역 소득계정의 순처분가능소득, 명목임금은 지역별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취업자수는 경제활동인구의 연간 취업자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적용. 분석대상은 16개 광역시도, 분석기간은 명목임금 데이터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감안하여 2008년~2022년으로 설정

o **(민간소비)** 2023년 부산지역 명목 민간소비는 <참고 1>을 통해 추정한 가계소비 증가율에 2023년 부산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계산

모수 추정 결과[1)2)]

명목임금	취업자수	R^2			데이터수
		within	between	overall	
1.034*** (0.022)	0.775***(0.053)	0.979	0.985	0.982	240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 ) 내는 추정치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s)

참고문헌

권규호(2016), “기대수명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문수성·김지원(2024), “부산지역 소비유출입의 특징과 동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부산본부

박경훈 외(2022), “금리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BOK이슈노트, 한국은행

이예리(2022),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고용의 질 평가”, 한국은행 부산본부

홍기석·전영준(2018), ”고령인구의 저축 실태와 거시경제적 함의“, 국회예산정책처

홍기석·박소민(2021),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한계소비성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Bernanke·Gertler·Watson(1997), ”Systematic Monetary Policy and the Effects of Oil Price Shock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8(1)

Bomberger(1996), ”Disagreement as a Measure of Uncertaint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8(3)

Doz et al.(2011), ”A Two-step Estimator for Large Approximate Dynamic Factor Models Based on Kalman Filtering“, *Journal of Econometrics*, 164(1)

Edelstein·Kilian(2009), ”How Sensitive Are Consumer Expenditures to Retail Energy Price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6

Krueger·Pavlova(2024), ”Quantifying Subjective Uncertainty in Survey Expec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40(2)

Ludvigson et al.(2002),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Through the Consumption Wealth Channel“, *FSBNY Economic Policy Review*